

# 직장직능단체 봄철 성지순례

## 금용단 · MBC 불자회 등 명찰 찾아 야외법회 가족과 함께 기도정진...신심 증장 · 화목다져

전국의 산과 들에서 봄바람에 실려 온 꽃내음이 바쁜 직장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다. 꽃샘추위를 보낸 이날, 말부터 전국 산사를 순례하는 직장직능단체의 명찰순례 봄 나들이가 한창이다. 직장직능 단체의 성지순례는 부처님 숭배가 가득한 산사에서 신심을 한층 더 증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불자직장인들에게 일상의 과중과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만끽하게 해줘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회원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는 곳도 많아 상호간 친목과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대전운전기사불자자연합회 금강지부(지부장 송화영)는 31일 당일코

스로 설악산 낙산사를 순례한다. 이날 참석한 30여명의 회원들은 IMF로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와 정진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042)626-6463

동북라이온스클럽(회장 윤천수)은 4월3일~4일 경주 남산일원 성지순례 법회를 갖는다.

3일 오전 7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하는 동북라이온스클럽은 성지순례를 삼릉계곡에서 용장사에서 하산하는 코스로 순례한 후 김은사지, 문무대왕암, 오아사, 자장암, 기림사, 골굴암, 백운사 등을 이틀에 걸쳐 참배할 계획이다. (02)733-4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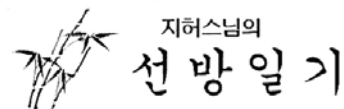
구미개인택시운전불자회(회장

서병욱)도 4월8일 동백곶으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으로 성지순례 겸 봄나들이를 떠난다. (0546)33-3244

또 MBC불교연구회(회장 유희근)는 지난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서울, 부산, 대구 3개 지역사 불교연구회가 합동순례대회를 가진데 이어 4월24~25일 내설악 백담사에서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청주, 마산, 대전 문화방송 등 전국 10여개 지역사와 합동으로 성지순례법회를 병행한다. (02)789-2371

충북에비역불자자연합회(회장 김방일, 0431-276-6812)는 4월 중순과 4월25일 쌍계사, 칠불암 등 지리산일대 사찰순회를 겸한 기념법회를 갖는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 “수행자는 자신과 싸워야 한다”



###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12

〈지난 호에 이어〉

그리고 극히 위생적이다. 발우는 자기 발우를 사용하고 또 자기 손으로 씻어 먹는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는 집이 천으로 되어 있고 발우 보자기와 발우는 뚜껑이 있어서 식사도구에 먼지 같은 건 침입할 틈이 없다. 발우 뚜껑은 며칠만에 빨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다. 발우는 가사와 함께 언제나 바람 속에 넣어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몇대를 물린 발우도 있다. 대를 거둔 발우일수록 권위가 있다.

장난기 많은 스님들 때문에 만두국 공양시간이 어지럽고 소란했다.

공양이 끝나자 과묵하신 조실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옛날 어느 화상(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도량)의 공양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간에 앉아 공양하는 조실스님의 눈길이 공양하는 행자에게 주어진다고. 그런데 그 행자의 극그릇에 생쥐가 들어 있었어요. 행자는 대충이 알까봐 얼른 극그릇을 입에 대고 생쥐를 삼켜버리려고요. 그러자 탁자위의 부처님이 손을 길게 뻗어 행자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라고요. 행자가 극 그릇에서 삼아진 생쥐를 꺼내면 대중들의 비위가 어떻게 되었어요. 먹지 못하는 생쥐도 감쪽같이 먹었는데 짜고 맵고 뜨거워 먹는 것인데 비명과 탄성을 지르면서 공양시간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먹는 음식에 장난을 한 스님들이 시은(施恩)에 배반한 업보에 대해 우리 다 같이 참회하도록 합시다.”

장난질을 했던 스님들의 고개가 숙여졌고 비명과 탄성을 질렀던 스님들의 얼굴은 흉당무가 되었으며 입승스님의 표정에는 곤혹스러움이 가득했다. 별식(別食)이 죄식(罪食) 같은 기본이었으나 조실스님의 훈교(訓誥)는 심성도야에 훌륭한 청량제였다.

### 12월 30일 설달그믐

설달 그믐날이다. 낮의 시간은 물결로 보였다. 떡방아도 쪼고 대청소도 했다. 세탁도 하고 묵묵도 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얼른 잠이 오지 않았다. 세모(歲暮)라는 감성때문이다. 세모는 날 일깨우면서 돌아다보라고 한다. 인간은 직립(直立)이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비쳐볼 줄을 아는 의식의 거울을 가졌기에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일년이 하루같이 단조로웠던 선택생활이었는데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더욱 돌아다 보라고 세모는 말하고 있다. 돌아다보니 하지부성이다.

나는 정초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계획을 세울만큼 희망적인 계기도 없었지만 계획을 세워 계획이 달성되지 못했을때 가져야 하는 절망감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담담한 마음으로 돌아다 볼 수

미련없이 뜯어버리고 새 달력장을 거는 용기를 가지라.

인간이란 과거의 사살만을 위해 서 있는 망두석(望頭石)이 아니라 내일을 살려고 여제의 짐을 내려 놓으려는 자세가 있기에 비로소 인간이라고.

화두는 어서 변화를 보여달라고 하면서도 깊은 잠속으로 끌고간다.

밤에 우는 산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울드랭사인’처럼 아쉽게 들렸다.

### 1월 1일 스님의 위선

신년 정초다. 버렸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혈연과 향관(鄉關)이 망막 깊숙이서 잠철되어지는 것은 선택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비정하기에 누구보다도 다정다감할 수도 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다. 뒷방이 만원이다. 여러 고장 출신의 스님들이라 각기 제 고장 특유의 설 차례와 설법 등에 관한 얘기들을 나눈다. 평소에도 선택들의 먹는 얘기는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끼리끼리 앉아 있거나 마련이다. 남방출신은 그들대로. 북방출신은 그들대로. 호마의북풍(胡馬依北風)이요 월조소남지(越鳥巢南枝) 때문이었다.

오후에는 웃음이 벌어졌다. ‘감자 구워내기’를 곁고서, 떡국을 잘 먹어 평양감자가 부럽지 않은 위의 사정인데도 구운 감자가 또다시 식성을 돋우니 상원사 감자 맛은 역시 미식가도 대식가도 거부할 수 없는 특이한 맛이 있나 보다. 경상도 사투리가 관을 치는 웃음이 깔이 나고 구운 감지도 먹었다.

어둠이 깃드니 무척이나 허전하다. 어제는 세모여서 허전하다 하겠지만 오늘은 정초인데 웬 일일까. 고독감이 배에 사무치도록 절절하다. 세속적인 기분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잠겨져 있다면 불꽃 고개를 치민다. 이럴 때마다 유일한 방법은 화두에 충실할 수밖에. 그래서 선택은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열반경〉은 가르치고 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고독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 그 자체만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다.” 고독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백은 ‘월하독좌(月下獨酌)’에서 고독을 노래했다.

꽃이 만발한 숲속에 한동이 술이로다 그러나 친구가 없어 홀로 마실 수밖에 잔을 들어 돌아 오려는 달을 맞이하고 그림자를 대하니 세사물이 되었구나 달은 분디 술을 못하고 그림자는 부질없이 나를 따라 움직일 뿐이로구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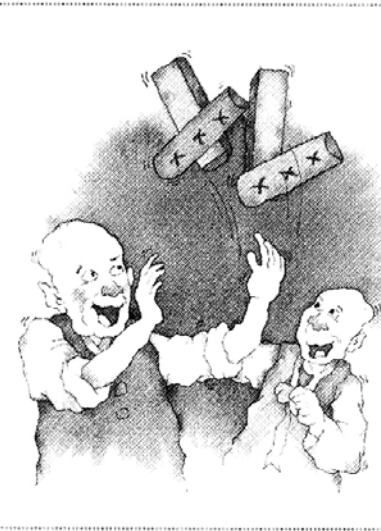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 올해도 전성 못했으니 보은 못하네 사무치게 고독한 정초 화두에 충실

있으리라고 생각되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아쉬움이 앞섰다.

정초는 태백산 토굴에서 화두와 함께 맞이했다. 화두는 어떤 의미와 내용으로 살펴 보아도 정초와 똑같은 뉘인데 나의 등신(等身)은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이가 하나 뿔혀 나갔고 이마의 주름살은 수를 더해 가면서 골을 깊이 했고 머리 숨은 수를 줄여가면서 윤기를 빼앗겨버렸다.

받은 것이 있었다면 주어야 하고 준 것이 있었다면 받아야 하는 이 세모에 나는 감지는 못하고 또 빛만 지고 말았다. 불은(佛恩)을 무한히 입어 선방에 머무를 수 있었고 시은으로 육신을 지탱할 수 있었음에도 견성을 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보은하리. 회한이 몹시 처진다.

그러나 세모는 나에게 알려 온다. 이제 한해의 시간은 다 가고 재야가 가까웠음을. 그러면서 타이른다. 한해의 것은 한해의 것으로 돌려주라. 그러면서 마지막 달력장을

## 한빛은행 불자회 창립

### 고산스님 “실천하는 불자 되라” 법문

한빛은행 불자회가 첫 출범했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합병사인 한빛은행 불자회(회장 소병식 본당동지점장)가 20일 한빛은행 본점(구 한일은행 본점) 5층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한빛은행 불자회가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열린 이날 법회에는 한빛은행 각 지역 불자회 회원과 제일은행불자회 서울은행불자회 기업은행불자회 회장 등 전국금용단불자자연합회 회원, 합창단원 등 1백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빛은행 불자회 전국 3백여명의 회원이 활동에 들어갔다.

소병식 회장은 “한빛은행불자회의 창립은 화합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펴 보인 것으로 불자회를 재창립하고자 하는 타 한빛은행사에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 회장은 “직장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하는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불자행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고산 총무원장은 “부처님 말씀을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불법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다. 불교전문서적을 보고 이론에 해박한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부처님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헤아려 실천하는 불자가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한상 자기의 행동을 자기 양심에 반조해 살 줄 알고 회사일에 보람이 되는 불자직장인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필선 기자

## 운불련 대의원 총회

한국운전기사불자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31일~4월1일 수석사에서 제4차 대의원 총회 및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수련대회에 앞서 21개 지역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과 규약개정 안을 논의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마곡사 · 약사산악회 창립

충남공주마곡사산악회(회장 윤석환)와 대전약사불교산악회(회장 박암이)가 4일 마곡사에서 합동 창립법회를 병행한다.

마곡사산악회와 대전지역 약사들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된 충남

## 우리 모임에선

공주마곡사산악회와 대전약사불교산악회는 법회 당일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순천시 총재로부터 회기와 인준패를 전달 받는다.

이날 법회에는 서울·경기지역 불이산우법회와 연성회를 비롯 대전불교산악회, 비룡불교산악회, 한발불교산악회 등 4백여명의 전국 불교 산악인들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 교사불자련 사무실 현판식

전국교사불자자연합회(회장 임완숙)가 20일 사무실(서울 종로구 청진동 수성빌딩 4층)개소 기념 현판식(사진)을 가졌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현스님을 비롯 불자교사, 불교계 재단체 종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현판식에 이어 집들이겸 조출한 다과회가 마련됐다.

## 왕산비로자나불 공양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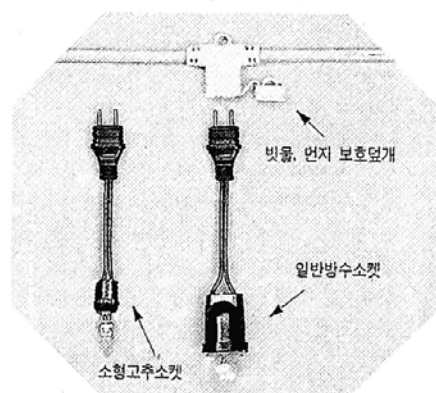
상주법우회(회장 김중하)는 4월 10일 상주 왕산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왕산비로자나불 공양법회’를 병행한다.

# 봉축행사 가로등 · 법당기도등용 전기배선 매직케이블 안내

## “매직케이블을 구입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소켓이 분리되는 세계유일제품!

연등용으로 특수처리(장력보완)된 연등 전용 특수 전선임. (일반 기성품 전선 아님)



의장원 14959호

### ※ 전국 각시암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 받고 있는 본 제품은

- '96년 제일안전공사에서 업계 최초로 전국 각 시암에 납품시작
- '96 국제안전기기展 히트상품선정 (납품실적 : 대구동화사 외 150여 시암)
- '97년 기 제품의 문제점 (장력)을 보완 · 개선시킨 신개발품으로 납품
- '97 국제 안전기기展 히트상품 선정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노동부장관상) 수상. (납품실적 : 제주약천사 외 570 여시암)
- '98년 IMF 환란으로 제일안전공사로부디, 본 제품제조업체였던 삼정전기산업에서 사업권 인수. (납품실적 : 광주 무곡사 외 250여 시암)
- '99년, 삼정전기산업에서 직접제조 및 납품, 원자재 가격하락등으로 인한 제품 가격 대폭인하조치 단행.
- 본제품을 이미 구입하신 전국 각 시암에서 추가 구입시 특별한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번 맺은 인연은 늘 소중한 간직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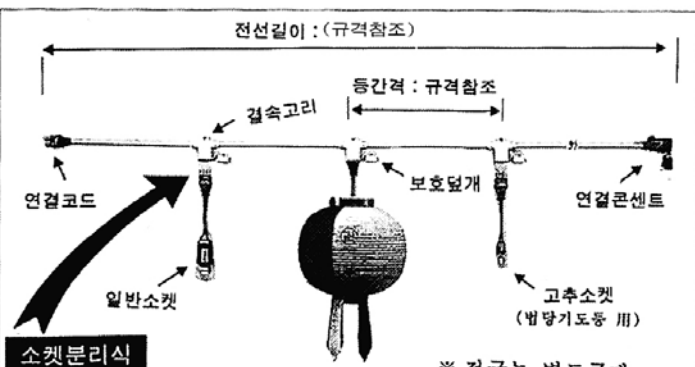
- 구입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100% 반품 받습니다.
- 주문 접수순에 의거 계획생산되오니 꼭 미리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등 및 전구는 원하시면 구매 대행 서비스 해드립니다.

■ 본사 주문 및 상담전화 (032)676-8884 (대)

☎ (032) 676-8881~3 FAX 032-676-8885

H.P 016-360-3676 성기홍 합장



전구선택! 안심하십시오 (누전 · 합선예방) 매달보수필요! 필요없습니다 (단선 부식예방)

**제품의 특징**

- 누전 · 합선이 예방되므로 안전 하고
- 소켓이 분리되어 설치 · 수거 · 보관이 매우 편리 하며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꼽아 쓸수 있어 효율적 이며
- 단선 · 부식이 예방되고 소켓과손시 교환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 입니다.

**제품규격**

- 전선규격 : 2mm, 3.5mm(내수용) 2.5mm, 4mm (수출용)
- 등 간격 : 25cm 30cm 50cm 1~5M 기타사양 주문제작
- 전선길이 : 12.5M, 15M, 25M, 50M 기타사양 주문제작

## 삼정 전기 산업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38-3